

노인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연구 결과

□ 조사기간 : 2011년 6월 ~ 2011년 12월

□ 조사내용

-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
 - 성생활 여부, 매매춘 및 성병실태, 성인용품 및 성기능 보조기기 사용 실태 등

□ 노인의 성생활 관련 설문 결과

- 성생활을 한다는 응답자수는 전체 500명 가운데 66.2%(331명)였으며, 성생활을 안 한다는 응답자수는 33.8%(169명)으로 2/3이상의 노인들이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음.
-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(331명)의 성병감염 빈도(122명, 36.9%)는 높았으며, 감염된 성병의 종류는 '임질'이 50.0%(61명)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, '요도염(질염)' 17.2%(21명), '사면발이' 5.7%(7명), '매독' 1.6%(2명) 등의 순이었으며, 성병의 종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15.6%(16명)나 되었음.
- 성매매 시 콘돔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'사용하지 않는다'가 44.7%(80명)로, '가끔 사용한다' 27.9%(50명), '항상 사용한다' 27.4%(49명)에 비해 높게 나타남.

□ 성인용품 구입

-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(331명) 중 성인용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5명(19.6%)이었으며, 구입 경로는 '성인용품 매장'이 49.2%(32명)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, '신문, TV광고'

18.5%(12명), '전단지'가 7.7%(5명), '인터넷' 7.7%(5명)의 순으로 나타남.

- 구입한 성인용품의 종류는 '남성용 자위기구' 23.5%(16명)와 '무허가 진공음경흡입기'가 23.5%(16명)가 가장 높았음
- 성인용품 관련 불만 사항은 '위생 상태 불량(냄새, 재질 등)'이 30.6%(19명)로 가장 높았고, '가격 대비 실망스러운 제품 성능'이 22.6%(14명), '잡은 고장' 6.5%(4명)등의 순임.

□ 발기부전치료제 구입경험, 구입이유, 구입경로

-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(331명) 중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 응답자는 50.8%(168명)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 정품여부를 설문한 결과, 정품사용이 58.3%(98명)로 높았으나, 비정품사용이 23.8%(40명), 모르고 사용한 비율은 17.9%(30명)였음.
- 구입 동기는 '성기능 향상'이 55.0%(94명), '호기심' 23.4%(40명), '발기부전 치료' 19.9%(34명) 등의 순으로 나타나, 발기부전 질환을 보유하지도 않은 절반이상의 노인이 단순히 '성기능 향상'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.
- 구입 경로는 '약국'이 50.3%(86명), '성인용품점' 15.8%(27명), '기타' 14.6%(25명), '노점판매상' 14.0%(24명), '전단지 구매' 2.9%(5명) 등의 순으로 불법적인 경로가 49.7%를 차지함.

□ 성기능 향상 의료기기 구입경험, 구입경로, 부작용

- 성기능 향상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5명(13.6%)이며 구입한 제품 종류는 '정품'이 40.0%(18명), '무허가 제품'이 31.1%(14명)로 비슷했으며, '기타'도 28.9%(13명)로 나타나 무허가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.
- 구입 경로는 '의료기기 판매점'이 25.0%(12명)로 가장 높았고, '성인용품점'이 22.9%(11명), '기타'(16.7%), '노점·무료 체험장 등

방문판매'(12.5%), '인터넷 온라인 쇼핑몰'(14.6%), '신문·광고'(8.3%)의 순으로 나타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무허가 제품의 구입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됨.

-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는 '부작용 없음'이 42.9%(18명)을 차지하였고,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57.1%(24명)으로 나타남.